

자민련·한나라 불자회 '위기'

◇ 지난 4·13 총선에서 낙선한 불자국회의원이 많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불자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법회장면.

박철언 함종한 회장등 다수 4·13 총선 낙마 임원진 못짜고 일정 불투명...종단관심 필요

4·13 총선에서 자민련과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던 박철언 함종한 의원을 비롯한 불자 국회의원이 대거 낙선하면서 정당 불자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신자 국회의원들이 지난 16일부터 세계기독교연맹 출범식, 국가조찬기도회, 국민일보 주최 기독교회의원 당선자 축하 모임 등 연일 모임을 개최해 응집력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불자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있어 정당 불자회와 정각회가 결국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불자회는 회장을 맡고 있던 함종한 의원과 불자회 창립 멤버인 권익현 의원 등 불자회 국회의원 대다수가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불자회를 이끌어 갈 책임자가 없어 92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다보니 원내구성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로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련불자회도 회장으로서 불자회 운영을 도맡아 왔던 박철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면서 난과 직전에 있다. 그러나 비록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부총재라는 당직을 맡고 있는 박철언 현 회장이 재입하면서 불자회를 계속 이끌어 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연동회는 한나라당과 자민련불자회와는 달리 총선 결과가 성공적이어서 자못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장인 박성규 의원, 간사인 조성준 의원과 추미애 의원이 모두 원내에 진입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와대불자회 출신인 박주선 당선자, 전국구 당선자인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류할 것이 확실해져 몸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같은 연동회의 약진은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청와대불자회와의 합동법회에서 과시되고 있다.

연동회는 6월9일 총회를 열어 국민회의 연동회를 민주당 연동회로 승계하고, 새 회장체제를 출범시킨다. 회장에는 박성규 의



원에 이어 김기재 당선자가 거론되고 있다. 김 당선자가 연동회장이 되면 관례대로 국회의 정각회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 불자회가 이처럼 위기에 봉착한데는 종단의 무관심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불자 의관들이 한데 어울릴 명분이 약하고, 스스로 불자회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심점이 돼 주

어야 할 종단마저 나물라라 뒷짐만 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불자 의관들이 신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불교계 권익옹호를 위해 나름대로 의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양성복 (국방부근무지원단 사무관,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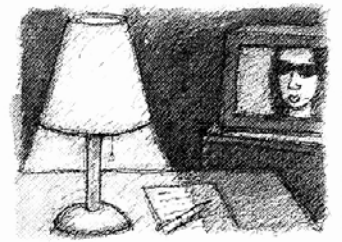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의 직장인들은 때로는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을 부러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가한 사람중에는 일터가 없어 안타까운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에 열중(熱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나는 10여년전에 담석증 때문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담석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경이 예민해져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3시쯤 서울대 병원 응급처치실로 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응급 중환자실 입구는 매우 부산하고 어수선했지만 전국에서 애타게 살려오는 중환자들은 참나에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매우 위급한 중환자들이었다. 길게 늘어선 침대 위에 응급환자들의 환부를 처치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손동

작 아름다웠다. 훈련(전투)에 열중하는 군인, 교육에 헌신하는 교육자, 장사에 열중하는 노점상. 한밤에 오징어 잡이에 몰두하는 어부. 불쌍한 이를 돌보는 수녀, 종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수도에 정진하는 스님, 자손을 위하여 늙도록 육체 노동을 계속하는 노동자, 천수답(天水灘) 한강도 묵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 동종

이와 반대로 요사이 좋지 않은 일로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류(女流) 사기꾼(?)이나 로비꾼(?)들, 부정한 재



"일에 열중하는 모습 아름다워"

작 하나하나가 매우 엄숙하며 질서있고 성숙하게 보였다.

"인생이란 무대에는 플레이어(Play Again!)이라는 구호가 없다" 하듯이 현생에서 단 한 번뿐인 생명의 승고(崇高)함을 일깨우며, 최후의 일까지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모습이 그때처럼 숙연하고 아름답게 보인 적도 없었다.

나는 그때 너무나 사람처럼 한 순간 이상을 중환자실 응급실로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나의 마음과 정신이 조금은 맑게 씻겨진 느낌이었다. 마치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확인하리라고 한 듯이.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다음날 회진(回診)때 주치의에게 며칠만 일찍 퇴원할 수 있도록 직장에 일주일 이상 빨리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허락을 얻어 조기퇴원을 했다. 직장에 복귀한 나는 그날 응급실에서 느꼈던 숙연함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다.

일에 열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미스코리아 진(眞)보다 훨씬 한 곳 아닌가.

물을 토해내지 않고도 사면(赦免) 받은 사람들의 뱃속 이야기를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고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에 인용하기 부적절할 뿐이다.

내 일터에서 마음의 편지를 쓰는 것조차 부끄러워 집어와서 한 밤에 이 글을 쓴다.

산나는 것이 결국 억척속의 할 나리엔 순간순간마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이 풍요롭고 자신의 영혼을 살지우는 것이 아닐까?

마음의 여유로움조차 갖기 어려울때면, 일상사의 괴로움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대표하여 특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아니면 가까운 산사에도 가서 종경소리를 듣고 마음을 맑히는 일도 괜찮을 듯 싶다. 비운 후에 외출을 삼가면 지렁이도 밟지 않을 것이니 하얀거에 들어가는 스님들의 마음을 헤아려봐도 좋겠지만 나는 아직 중생인걸 어쩌랴. 일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행보를 우리는 버리지 말며, 때로는 주먹같은 시구라도 외워보면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한 곳 아닌가.

클릭! 새 홈 페이지

■ 연세대불교모임(http://cafe.daum.net/ybubf)-4월18일 개설. 연세대 불교 학생회 회원들의 방.

■ 정법포교학생회(http://cafe.daum.net/jungpub)-4월19일 개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 소속 정법포교학생회 카페.

■ 천안 각원사 학생회(http://cafe.daum.net/wooris)-4월19일 개설. 천안 각원사 학생회 선운배 모임의 방.

■ 포항고불선원학생회(http://cafe.daum.net/chm9829)-4월20일 개설. 포항고불선원학생회의 학생들과 졸업한 회원들과의 연락창구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 금剛2000(http://cafe.daum.net/kumgang2000)-4월20일 개설. 금강불교학생회 수료 선배들이 꾸민다.

■ 정도의 세계(http://cafe.daum.net/jungto)-4월20일 개설. 불교, 사회복지자료와 신행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토 세계의 회원은 도림사에서 부모사시기도 축원도 해준다. 도림사 소식지와 어린이법회 소식도 알 수 있다.

■ 미타사(http://cafe.daum.net/mitasa)-4월22일 개설. 미타사 법우회 모임터.

■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문가족들(http://cafe.daum.net/foreverbr)-4월24일 개설. 부산 등대 법문사 가족들의 홈.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ryang@buddhopia.com

장애인 수중결혼식 승가대 동호회 알선

스님이 주례를 서고, 스님이 하객으로 참여하는 수중 결혼식이 27일 강릉 남양진 해수욕장 앞 바다 속에서 열렸다.

중앙승가대학교 스킨스쿠버 동호회인 천수천안장예인 수중동우회(회장 대원스님)는 천수천안장예인 수중동우회와 공동으로 1급 장애인 최혜구씨와 비장애인 장수정씨의 결혼식을 바다 속에서 주관했다. 최씨 부부는 부모의 반대로 오랫동안 결혼식을 미뤄 오다가 최근 승낙을 얻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대원스님은 "역경을 딛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최혜구, 장수정 부부에게 오래도록 기쁨에 남을 결혼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불교언론인회장 신광식씨



한국불교언론인회는 17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에 현 회장인 신광식씨(사진)를 재선임하고 회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칙은 매년 개최기로 한 정기총회를 2년에 한번, 총회 의결 정족수를 참석회원 과반수 의결로 하는 등으로 개정됐다.

운불련 전국 체육대회

전국불교운전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6월18일 오전 9시 대전 상업정보고등학교

네터즌 불자 '야단법석'이 좋아요

하불동 소모임 산사 특강·수련 불

하이텔불교동호회 각 지역회가 21~28일 잇따라 모임을 갖는 등 나들이 철을 맞아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이텔불교동호회 불자 소모임인 칠연회는 21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2000년 상반기 전국모임을 갖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북 전남 지역회도 21일 정기법회를 겸해 해남 대흥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강원모임은 27~2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춘천 석왕사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오재로 현악 4중주단의 축하 연주와 '일시불교(근본

불교)의 이해'에 대한 특강, 청평사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북 경남모임은 28일 대구 삼보사를 방문. 주지 자연스님과 '신행생활 중 궁극의 점 스님께 여쭙어보기' '차와 생활속의 지혜'에 대해 부담없는 대화를 나눴다.

한편, 다인(茶人)들의 모임인 명동계는 6월3~4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에 위치한 효원수재차밭으로 찾차를 만들려 간다. 이날 동참자들은 생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제다한다는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운동장에서 대전지역회 주관으로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대전지역회는 축구, 족구, 배구, 테니스 경기만으로 우승을 겨뤘던 예년과 달리 제기차기, 윷놀이, 풀넉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추가해 재미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지역회 6백50여명이 참석한다.

스카우트불교회 운동법칙

전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대회(회장 권영일)는 27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제82회 운동법칙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정육 법사의 강설로 '증도가' 강의가 진행됐다.

02)2292-8502

서울시청 불심회 정기법회

서울시청불심회(회장 재태룡)는 27일 오후3시 성북동 태고사에서 서울 정기순례법회를 가졌다. 40여 명의 서울시청 불자 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태고사 종연스님이 법어했다.

철도청법우회 양로원 봉사

철도청 구로승무사사무소 불교법우회는 30일 시흥 혜명양로원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20여 명의 법우회원들은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간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공양 준비와 방 청소 등을 도왔다.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등의보감에도 향비(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체계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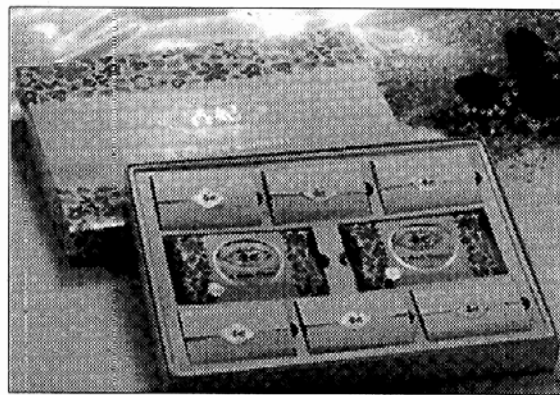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 억제 효과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제염사레 (생리통·기미)

33세인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 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도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캐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포서 금정동 장영희)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외유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땀이 많이 나고 딱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